

최진영's China/Commodity Trends

미국-중국 정상 통화,
어디서 많이 본 그림



China / Commodity
최진영
02 3779 8689
jychoi@ebestsec.co.kr

美中 정상 전화통화, 되돌림의 가능성

18일, 시진핑 中 주석은 트럼프 美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美中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당초 시진핑 주석이 불참할 것이라 우려가 커졌던 점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의 일부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 정상은 무역갈등에 있어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G20 정상회의 前 양국 협상단이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 언급했다. 지난 2개월간 양측이 주고 받은 난타전을 본다면 상황은 이전 보다 분명 완화됐다.

물론 이번 전화통화 내용만 놓고 G20 정상회의에서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아직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한 주 사이에 모든 것들이 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러나 소통의 재개는 양측 모두 여전히 타협을 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휴전을 통한 협상 재개가 결정될 경우, 무역협상의 Key Indicator인 위안화를 비롯한 위험자산은 다시 되돌림이 나타날 것이다. 분명 무역갈등은 기술갈등이라는 장기적 이슈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지친 現 상황에서 추가적인 카운터 펀치 보다는 템포 조절을 통한 소통(또는 탐색전)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美中 정상간 전화통화, 2018년 12월을 연상케 한다



자료: Twitter,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무역협상의 Key Indicator, 위안화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진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